KLI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노동 리포트

Korea Labor Institute

2014. 10. 15 | 통권 제54호(2014-06) |

최근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변화

[요 약]

- 최근 여성 노동시장은 만혼과 늦은 출산, 고학력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고용률 최저점 연령이 늦춰지고, 고용률의 최저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의 대표적 특징인 M자형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임.

- 최근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가파르게 이어지며 외환위기 이전 최고치 수준(48.6%)을 2013년 48.8%로 회복하였고, 35~4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함.

- 그러나 인구증가효과와 혼인상태를 감안한 고용률 기여도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25~34세와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45~64세에서 고용률 증가에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총량적 고용률 변동은 그리 중요하게 작동했던 게 아니라 인구효과와 고학력이 고용률 변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변화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동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Oaxaca분해를 이용한 결과, 25~29세 젊은 여성의 고용률 변동의 대부분은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에 의해 설명됨을 확인한 반면, 30대 중반 이상에서는 학력과 혼인상태 이외의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요인(예를 들어 자녀 수와 자녀 연령, 배우자의 소득)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해 취업한 여성들의 산업구조 변화에는 사회서비스업 역할이 대단히 크게 작용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에 의해 전체 추세가 변동했다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증가함.

-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성과 직종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이전의 추세를 뒤집을 정도이며,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여성 취업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의 확대는 앞으로도 여성 일자리 변화와 고용률 증가에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음.

특성별 여성 고용률의 변화

■ 성별 고용률 장기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용률은 남녀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복의 양상은 성별로 다름.

- 남성은 외환위기 직후 급감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70% 수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함.
-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최고치 수준(48.6%)을 2013년 48.8%로 회복함.

■ 여성의 1세 단위 고용률은 여전히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최근에 가까울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임.

- 여성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고학력화와 고령화 등의 요인들에 의해 여성 고용률 최저점 연령이 늦춰지고, 고용률의 최고점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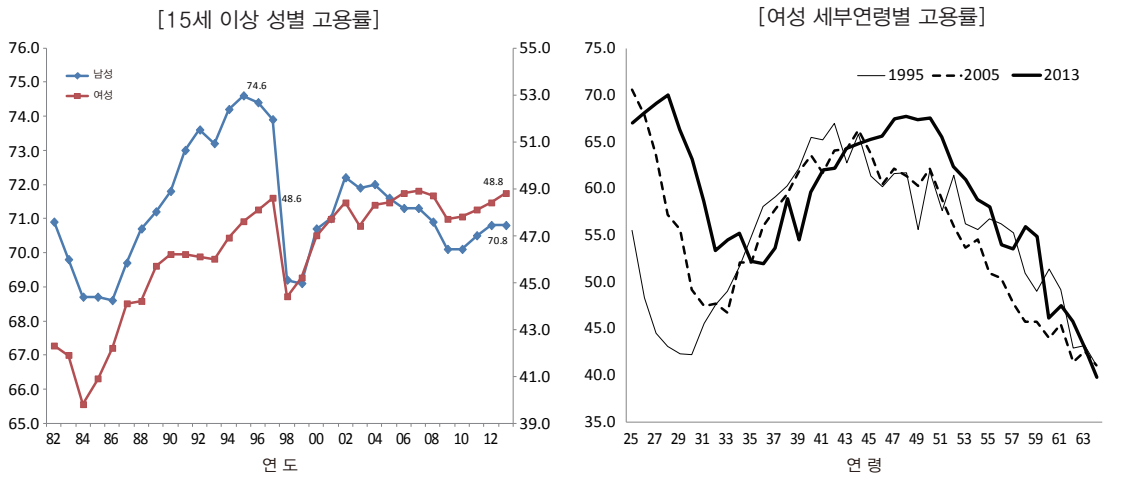
■ 총량적 여성 고용률은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육아와 보육이 절정에 이르는 35~44세에서는 감소하였지만, 다른 연령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함.

- 특히 배우자가 없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은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빠르게 증가해 2013년 80.1%를 기록하였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한편 배우자가 있는 25~29세와 30~34세 여성의 경우, 모두 2005년 대비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5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혼인경험이 있는 35~44세 여성은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가사나 육아, 보육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쉽지가 않은 영향으로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고용률이 하락함.
- 45~64세의 경우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 고용률 증가가 반드시 고용량의 증가를 의미

[그림 1] 성별 고용률(좌)과 여성 세부연령 고용률(우)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여성의 배우자 유무별 ·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5 ~ 2013
여성 전체	15~24세	35.5	32.3	30.4	28.6	27.4	27.7	27.7	28.3	27.8	−7.7
	25~34세	55.5	57.8	58.7	59.1	57.9	59.5	60.2	60.9	61.8	6.4
	25~29세	63.0	64.3	65.4	66.3	65.6	66.2	67.8	68.0	68.0	5.0
	30~34세	48.6	51.6	52.0	51.7	50.1	52.9	53.2	54.8	56.7	8.1
	35~44세	60.6	61.3	61.2	60.9	59.3	59.2	59.2	58.7	58.7	−1.9
	45~64세	54.4	55.3	56.1	56.7	56.3	56.4	57.3	58.0	58.9	4.6
	65세 이상	22.4	22.6	23.3	22.8	22.1	21.2	21.4	22.6	23.1	0.7
무 배우자	15~24세	35.4	32.1	30.2	28.5	27.2	27.5	27.7	28.2	27.7	−7.8
	25~34세	78.7	78.6	78.2	77.6	76.7	77.6	78.9	78.7	77.9	−0.7
	25~29세	79.8	78.8	78.9	78.3	77.4	77.9	79.2	78.0	76.9	−3.0
	30~34세	75.5	78.1	76.3	75.8	74.6	76.9	78.3	80.1	80.1	4.6
	35~44세	76.9	76.8	76.3	76.7	75.1	76.9	75.6	75.5	74.8	−2.1
	45~64세	59.0	60.1	62.5	63.4	61.5	61.8	61.0	61.1	63.4	4.4
	65세 이상	18.8	19.2	19.7	19.0	18.1	17.7	18.3	19.7	20.2	1.4
유 배우자	15~24세	37.5	38.1	35.1	30.2	31.6	32.1	25.7	31.6	33.1	−4.4
	25~34세	42.1	43.6	44.3	45.0	43.7	44.9	44.2	45.6	47.5	5.5
	25~29세	41.1	41.3	42.5	45.7	44.7	43.5	43.7	46.9	48.3	7.2
	30~34세	42.5	44.7	45.2	44.7	43.3	45.6	44.4	45.2	47.3	4.7
	35~44세	58.7	59.2	59.0	58.6	57.1	56.7	56.8	56.1	56.3	−2.4
	45~64세	53.2	54.1	54.4	55.0	55.1	55.2	56.5	57.3	57.9	4.8
	65세 이상	28.8	28.7	29.3	28.6	27.8	26.3	25.6	26.3	26.7	−2.1

주 : 무배우자는 미혼,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자를 가리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효과에 따른 고용률 기여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총량적 고용률 변화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임.

- 배우자가 없는 25~34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3년 고용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인구비중이 증가한 영향으로 기여도는 2013년 34.4%로 2005년의 31.5%에 비해 증가함.
- 배우자가 있는 25~34세 여성의 경우 경활 참가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률 기여도는 17.9%에서 13.4%로 감소함.
- 배우자가 없는 35~44세의 경우 고용률은 2005년 대비 2013년 2.1%p 감소했으나 인구효과를 감안한 고용률 기여도는 2005년 9.4%에서 2013년 10.3%로 증가함.
- 배우자가 있는 35~44세는 인구비중도 크게 감소하고, 참가율도 감소한 영향으로 고용률 기여도는 36.8%에서 29.6%로 크게 감소함.
-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45~64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인구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참가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기여도가 증가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인구비중과 참가율 모두 크게 증가

〈표 2〉 여성의 배우자 유무별 고용률 요인분해

(단위 : %)

		15~24세				25~34세				35~44세				45~64세			
		취업률	참가율	인구 비중	기여도	취업률	참가율	인구 비중	기여도	취업률	참가율	인구 비중	기여도	취업률	참가율	인구 비중	기여도
무 배우자	2005	91.0	38.9	39.4	30.7	94.4	83.3	18.2	31.5	95.5	80.5	5.6	9.4	97.0	60.8	15.0	19.4
	2013	90.8	30.4	35.9	22.6	94.4	82.5	19.4	34.4	95.7	78.2	6.1	10.3	98.0	64.7	15.2	22.0
유 배우자	2005	91.7	40.9	1.0	0.8	97.7	43.1	21.4	17.9	97.7	60.1	31.6	36.8	98.5	54.0	37.8	39.9
	2013	94.6	35.0	0.7	0.5	98.1	48.5	14.6	13.4	98.4	57.2	27.3	29.6	98.6	58.8	45.1	50.2

주 : 1)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 참가율=경제활동인구/인구, 인구비중=각 집단 인구/전체 인구
2) 무배우자는 미혼,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지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영향을 받아 고용률 기여도가 2013년 50.2%로 크게 증가함.

■ 여성 노동시장의 공급 측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변화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동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검토하고자 함.

– 2005년과 2013년 사이 25~34세 여성 고용률은 약 6.37%p 증가했는데, 이러한 고용률 증가는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변화로 약 82%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 혼인상태를 제외한 효과, 즉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어떤 효과인 분포 외 효과는 18%가량 고용률 변동을 설명함.

– 25~29세의 경우는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변화가 고용률 변동을 모두 설명하고, 30~34세의 경우는 분포 효과가 62.3%로 낮아져 젊은 여성에게는 학력과 혼인상태가 고용률 변화를 설명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표 3〉 연령별 여성 고용률 Oaxaca 분해 결과(2005, 2013년)

	25~34세			35~44세	45~64세
		25~29세	30~34세		
2005년 고용률	55.46%	63.04%	48.61%	60.64%	54.39%
2013년 고용률	61.83%	68.05%	56.70%	58.70%	58.94%
고용률 격차	6.37%p	5.01%p	8.09%p	–1.93%p	4.55%p
분포 효과	5.23%p	5.86%p	5.04%p	–0.89%p	0.35%p
	(82.0)	(117.1)	(62.3)	(46.0)	(7.6)
학력	1.95%p	1.82%p	1.82%p	–1.13%p	–0.23%p
혼인상태	3.28%p	4.04%p	3.22%p	0.24%p	0.57%p
분포 외 효과	1.14%p	–0.86%p	3.05%p	–1.04%p	4.21%p
	(18.0)	(–17.1)	(37.7)	(54.0)	(92.4)

주 : 1) ( )안은 설명 정도이고, 각 연령대 안에서 ( )안의 합은 100임.
2) Oaxaca-Blinder 분해방법을 응용한 성재민(2011)의 방식을 이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5~44세의 경우 고용률 격차는 1.93%p 감소했는데, 분포 효과가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포 효과에 의한 설명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
– 45~64세는 고용률 변동을 분포 효과는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분포 외 효과가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와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에게는 학력과 혼인상태 이외에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짓게 하는 다른 더 주요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변동 추이

■ 여성 산업별 취업자 중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2005~2013년 사이 167.7%(789천 명) 증가해 여성 취업자 증가분의 80%를 차지함.
– 이러한 변화는 여성 취업자의 산업 내 구성 변화를 가져와 2005년 여성 전체 취업자의 5%에 불과했던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2013년 12%로 증가해 여성 취업자 중 둘째로 고용규모가 큰 산업이 됨.
– 여성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다음으로 크게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2005년 대비 2013년 73.5% 증가했고, 전문, 과학서비스업(57.5%), 공공행정서비스업(47.8%) 등에서도 크게 증가해 사회서비

〈표 4〉 여성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

	2005	2007	2009	2011	2013	2005~2013 증가율(%)	2005~2013 증감(천 명)
전 체	9,526	9,826	9,772	10,091	10,494	10.2	968
농림어업	850	812	738	683	650	–23.5	–200
광공업	1,372	1,308	1,162	1,274	1,258	–8.4	–115
건설업	158	172	163	156	139	–11.7	–19
도소매음식숙박	3,173	3,093	2,926	2,832	2,935	–7.5	–238
운수업	101	97	94	119	132	30.2	31
금융보험	376	419	382	425	443	17.7	67
부동산임대	157	171	176	177	174	10.8	17
전문과학	190	234	262	283	299	57.5	109
사업서비스	300	394	407	482	520	73.5	220
공공행정	239	254	370	329	353	47.8	114
교육서비스	1,058	1,162	1,233	1,139	1,167	10.3	109
보건사회복지	471	542	774	1,063	1,260	167.7	789
기타	1,082	1,169	1,084	1,131	1,165	7.7	83

주 : 광공업은 제조업과 광업을 포함하고, 기타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스업과 전문영역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

- 반면 과거 여성 고용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추세적인 감소를 하며 2013년 238천 명(−7.5%) 감소해 가장 큰 규모의 감소를 함.

■ 여성 전문대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 모두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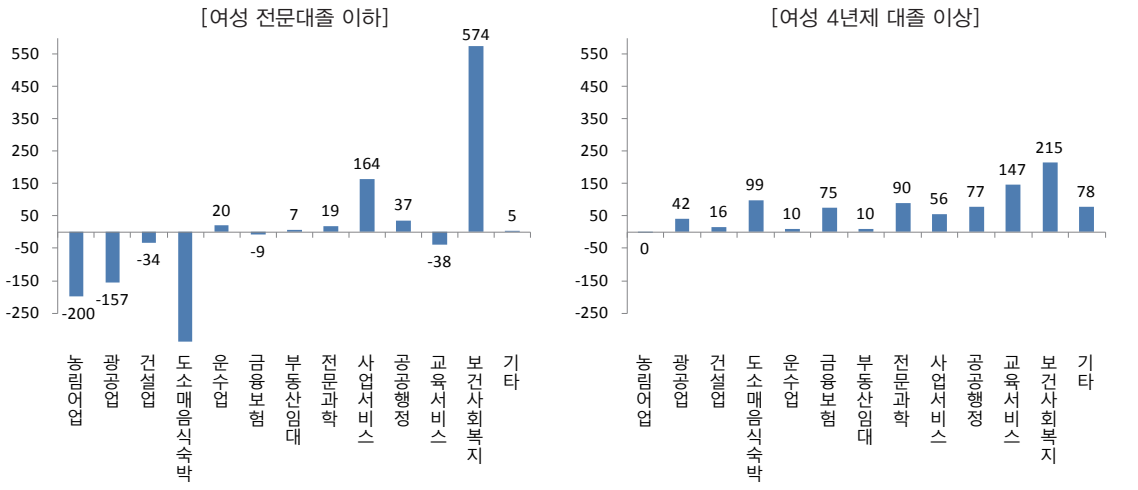
-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고용규모가 크게 감소함.
-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의 여성에서는 농림어업을 뺀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고, 보건 및 사회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함.

■ 여성 44세 이전 연령을 중심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 사회서비스업 쪽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줄어들어 여성 취업자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킴.

- 15~24세 산업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2005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0.9%)>교육서비스업(16.7%)>광공업(13.6%)>보건 및 사회복지업(9.3%)에서 2013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4.4%)>보건 및 사회복지업(17.6%)>교육서비스업(12.3%)로 분포와 순서가 바뀜.
- 25~34세의 경우 2005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1%)>교육서비스업(19.4%)>광공업(12.8%)>보건 및 사회복지업(9.3%) 순으로 분포해 있었지만, 2013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9.1%)>보건 및 사회복지업(16.7%)>교육서비스업(16.0%)으로 분포 순서가 바뀜.
- 35~44세는 2005년 산업 구성비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8.3%)>광공업(17.7%)>교육서비스업(12.1%)>보건 및 사회복지업(3.5%) 순으로 분포해 있었다가, 2013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그림 2] 여성 학력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2005~2013년)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5〉 여성 연령별 · 산업별 취업자 비중(2005, 2013년)

(단위 : %)

	15~24세		25~34세		35~44세		45~64세		65세 이상	
	2005	2013	2005	2013	2005	2013	2005	2013	2005	2013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3	0.6	0.5	0.5	2.9	1.1	13.7	6.9	56.5	38.4
광공업	13.6	8.8	12.8	11.3	17.7	13.6	15.0	13.7	5.0	3.9
건설업	1.9	1.3	2.5	1.7	1.4	1.5	1.4	1.2	0.7	0.6
도소매음식숙박	30.9	34.4	25.1	19.1	38.3	26.0	38.1	33.5	22.6	22.7
운수업	1.7	1.1	1.6	2.1	1.0	1.3	0.7	1.1	0.0	0.3
금융보험	4.5	2.6	6.0	6.0	4.6	5.8	2.5	3.4	0.2	0.8
부동산임대	1.0	0.5	1.4	1.0	1.9	2.1	2.0	1.9	0.8	2.0
전문과학	4.3	4.4	4.3	7.1	1.4	3.2	0.3	0.7	0.0	0.0
사업서비스	2.5	3.7	2.4	4.0	2.1	3.6	4.8	6.0	3.1	7.4
공공행정	2.1	1.2	3.2	3.5	2.6	3.9	2.3	2.8	1.8	6.5
교육서비스	16.7	12.3	19.4	16.0	12.1	16.4	4.3	7.3	0.4	0.8
보건사회복지	9.3	17.6	9.3	16.7	3.5	12.8	2.2	8.9	0.4	7.0
기타	11.2	11.6	11.5	11.0	10.5	8.9	12.6	12.6	8.4	9.7

주 : 광공업은 제조업과 광업을 포함하고, 기타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성별로 본 직종 구성비 변화

(단위 : %, %p)

	취업자						임금근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5	2013	격차	2005	2013	격차	2005	2013	격차	2005	2013	격차
전 체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관리자, 전문가 종사자	19.3	20.7	1.4	17.0	22.4	5.3	21.1	23.5	2.5	20.0	24.9	4.9
사무 종사자	13.5	15.4	1.9	16.5	18.8	2.2	19.9	20.7	0.7	22.5	23.4	0.9
서비스 종사자	6.4	6.1	–0.3	18.5	16.0	–2.5	5.0	5.5	0.5	15.7	13.8	–1.9
판매 종사자	11.6	10.4	–1.1	16.6	14.4	–2.2	6.3	6.6	0.3	12.8	11.4	–1.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1	5.8	–1.2	8.0	5.5	–2.5	0.4	0.5	0.0	0.4	0.1	–0.3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14.9	13.1	–1.7	3.9	2.9	–0.9	16.2	13.4	–2.8	3.9	2.5	–1.4
장치, 기계, 조립종사자	17.1	17.9	0.8	3.9	3.7	–0.2	17.3	17.0	–0.3	5.1	4.4	–0.7
단순노무 종사자	10.2	10.4	0.3	15.5	16.2	0.8	13.8	12.9	–0.9	19.5	19.5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6.0%)>교육서비스업(16.4%)>보건 및 사회복지업(12.8%)으로 분포 순서가 바뀜
- 45~64세의 구성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5~44세의 변화와 유사함.
- 65세 이상의 경우는 농림어업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행정(1.8%→6.5%)과 사업서비스업(3.1%→7.4%)에서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음. 공공행정에서 취업자가 늘어 구성비가 증가한 것은 정부정책에 의한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여성 산업별 취업자 구성 변화는 직종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직종 구성이 크게 변화함.
- 남녀 모두 관리자,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직에서 고용비중이 증가했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의 2005~2013년 구성비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큰 구성 변화가 생김.
- 여성은 사회서비스업과 전문영역 중심으로 취업자가 변화하면서 관리자, 전문가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져 2005년 17.0%에서 2013년 22.4%로 5.4%p나 증가했고, 사무종사자도 2005년 16.5%에서 2013년 18.8%로 증가, 단순노무 종사자로 2005년 15.5%에서 2013년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다른 모든 직종은 2005년 대비 감소했고, 이러한 경향은 임금근로자로 한정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음.

성재민(2011), 「상용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분석」, 『노동리뷰』 8월호, pp.37~6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02-3775-5583 / smjung@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KLI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인 : 이인재 / 편집인 : 남재량 / 편집·교정 :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